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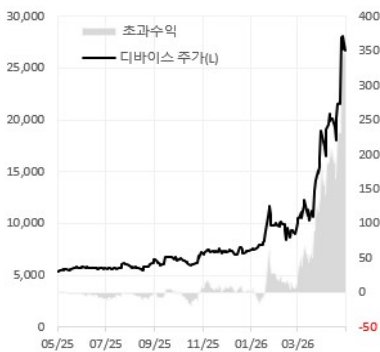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5/19)	25,950 원
시가총액	3652 십억
자본금	35 십억
발행주식수	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3.5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29,700 원
52 주 최저가	5,383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50 억원
외국인 지분율	1.1 %

주가



187870(KQ) 반도체/디바이스

발간일자 2026년 5월 20일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OLED & 반도체 둘 다 잡았다 ... 검증된 세정장비는 쉽게 못 바꾼다

- 1Q26 실적, 매출이익 전년대비 800% 폭증의 영업레버리지 구간 진입
- 글로벌 피어 대비 할인 구간, 실적 확인되면 레벨업 가능한 종목
- 검증된 세정장비는 쉽게 못 바꾼다, 락인 효과가 강한 회사

1Q26 실적, 매출이익 전년대비 800% 폭증의 영업레버리지 구간 진입

동사의 1Q26 실적은 단순 흑자전환을 넘어, 고정비를 압도하는 매출 폭발로 이익률이 급증하는 '영업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큰 폭의 흑자전환을 실현했다. 이는 매출 증가가 곧바로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수익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OLED 세정장비 분야의 강한 지위에 더해 반도체 오염제어 장비 수주가 본격화되며, 올해 영업이익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증설 비용 없이 수주가 곧바로 역대급 이익으로 연결되기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

글로벌 피어 대비 할인 구간, 실적 확인되면 레벨업 가능한 종목

동사는 2026년 PER 12.4 배, 2027년 PER 7.9 배로 글로벌 반도체 세정장비 피어 대비 할인 구간에 있다. 반면 ROE는 2026년 17.2%, 2027년 22.0%로 개선되고, 향후 3년 성장률 67.7%와 2025년 배당수익률 4.7%까지 갖췄다. 이는 성장성, 수익성, 주주환원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이다. 또한 실적 지속성이 확인되면 멀티플 리레이팅 여력이 큰 종목이다. 따라서 저평가와 성장성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검증된 세정장비는 쉽게 못 바꾼다, 락인 효과가 강한 회사

또한 동사는 OLED FMM 세정과 반도체 FOUP·Hot-SPM 오염제어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장비회사이다. 향후 OLED 시장은 연 19.6%, 반도체 장비 시장은 연 11.1%,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 시장은 연 8.7% 성장이 예상된다. 공정 미세화와 대면적화가 진행될수록 동사처럼 검증된 세정장비의 가치가 높아지며, 니치 리더로서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고객 라인 검증 이후 교체 장벽이 높아 락인 효과가 강하기때, 양쪽 성장축을 확보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이다.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억원)	125.1	72.7	57.2	47.2	84.1
영업이익 (억원)	35.8	13.3	4.3	4.2	17.3
영업이익률 (%)	28.6	18.3	7.5	8.9	20.6
순이익 (억원)	31.5	10.8	7.2	7.8	16.8
EPS (원)	4,470	1,535	1,023	1,108	2,393
PER (배)	6.8	9.0	14.4	10.8	5.8
PBR (배)	1.6	0.7	0.7	0.6	0.6
ROE (%)	27.6	8.2	5.3	5.5	11.0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171220

[2026년 1분기 실적 분석, 매출 급증이 이익으로 직결된 영업레버리지 구간 진입]

1Q26년 실적 단순
흑자전환이 아닌
영업레버리지 구간

동사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단순한 흑자전환이 아니라, 매출 급증이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된 전형적인 영업레버리지 확대 구간으로 해석된다. 연결 기준 매출은 311억원, 매출총이익 150억원, 영업이익은 123억원, 당기순이익 1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매출 성장의 질**이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0%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판매관리비는 24.5억원에서 27.4억원으로 약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비용이 같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고정비 구조 위로 매출이 얹히면서 이익이 급증한 구조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도** 전년 동기 16.7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약 800% 늘었다. 장비업체에서 이 정도 수익성 변화는 단순 판가 인상보다 제품 믹스 개선, 납품 타이밍, 양산 매출 인식, 수출 비중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 매출
서프라이즈 아닌
수익구조 변화 분기

특히 수익성 지표로 보면 동사의 변화는 더 선명하다. 2026년 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48.3%, 영업이익률은 39.5%, 순이익률은 35.6%이다. 전년 동기에는 이 지표가 각각 19.3%, -9.0%, -3.6%, -3.6% 수준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즉 **외형 성장보다 이익률 개선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점은 동사의 이번 실적을 단순 매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수익구조가 달라진 분기"**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1] 매출 급증이 이익으로 직결된 전형적인 영업레버리지 구간 진입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내수 기반 성장보다
해외 대형 고객
비중이 81%

또한 동사의 매출 구성도 중요하다. 제품매출이 30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품매출 3억원, 수선보수 등 용역매출 2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국내 59억원, 해외 252억원으로 해외 비중이 약 81%에 달한다. 이는 이번 분기 실적이 **내수 기반의 고른 성장**이라기보다 **해외 대형 고객 납품이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린 구조**임을 뜻한다.

주요 고객 비중도 A사 80.7%, B사 8.3%, C사 7.7%로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손익은 "고객 다변화에 따른 안정 성장"보다 "핵심 고객 중심의 대형 수주 매출 인식" 성격이 강하다. 이 구조는 단기 실적 급증에는 유리하지만, 분기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1Q26 말 수주잔고
636 억원

반도체 세정장비도
4/10 일까지
247 억원 수주 공시

향후 동사의 매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잔고는 2026 년 3 월 말 기준 약 636 억원이며, 생산능력은 2024 년 1,500 억원에서 2026 년 1 분기 기준 연환산 2,500 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2025 년 가동률이 33.5%, 2026 년 1 분기 누적 가동률은 12.3%여서 아직 설비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동사는 추가 대규모 증설 없이도 대규모 수주 증가가 곧바로 매출·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주력이었던 디스플레이 세정장비에서 2026 년 2 월 각각 삼성전자 30 억원, 미국 삼성전자 109 억원, 3월 SK하이닉스 38 억원, 4월 삼성전자 70 억원 등 반도체 세정장비 공급계약이 본격적으로 공시되어 반도체 쪽 실수주가 실제로 매출 및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는 설비 부족으로 성장이 제한되는 회사라기보다, 수주 증가 시 영업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되는 구조에 가깝다.

성장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OLED FM MASK 세정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둘째, FOUF와 Hot-SPM 등 반도체 오염제어 영역으로 시장을 확장한다. 그리고 셋째, 수주 확대를 기존 설비 여력으로 흡수해 이익률을 키우는 전략이다. 이는 이미 삼성전자향 반도체 세정장비 공시가 이어지고 있고, 2026 년 1 분기 실적에서 그 확장성을 보여줬다.

2026 년
매출 1,250 억원
(YoY, +49%),
영업이익 358 억원
(YoY, +106%)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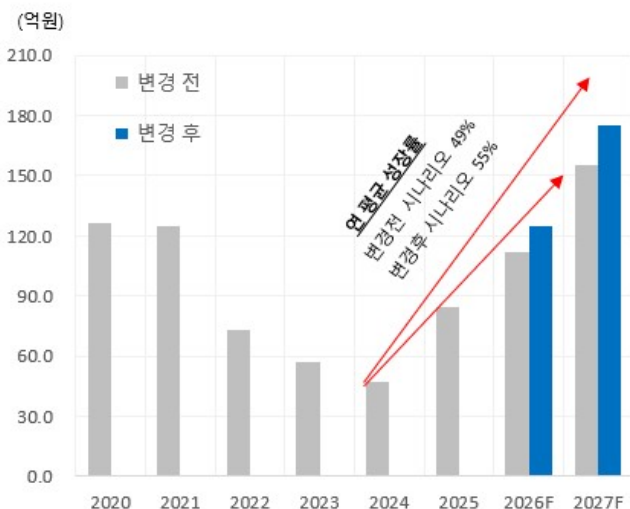
따라서 2026 년 실적 전망에는 IT OLED 시장의 대면적화(8.6G)와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의한 반도체 세정장비 수요 증가를 반영했다.

2026 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은 당초 1,120 억원, 262 억원에서 1,250 억원, 358 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20.6%에서 28.6%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매출이 손익분기점 (BEP)을 돌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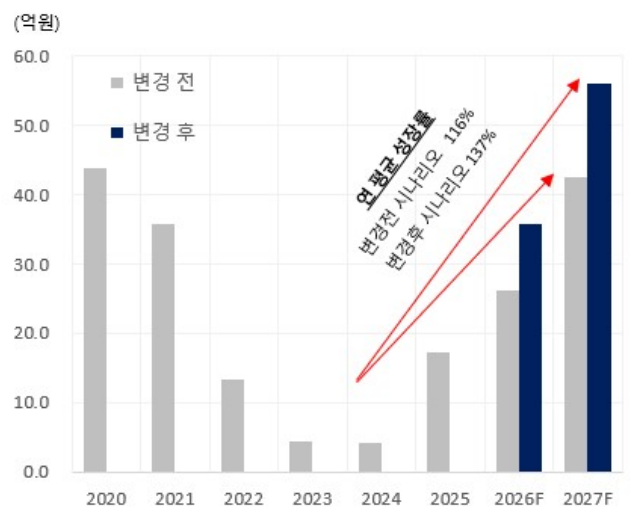
더불어 2026 년, 2027 년 NAURA, Screen 홀딩스, ACM 리서치 등의 글로벌 경쟁업체 매출 증가율 평균도 각각 21.2%, 20.5%를 전망하고 있기에, 반도체 세정장비 수주 및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동사 2026 년 매출 추정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림 2] 연도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그림 3]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디바이스, 핀릿 리서치센터

[글로벌 반도체 장치업체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단순히 배수가 낮다는 점보다, 실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속도를 감안할 때 아직 재평가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 있다.

5/18 일 현재 시가총액은 3,758 억원 수준이며, 2026 년 PER 12.4 배, 2027 년 PER 7.9 배, 2026 년 PBR 2.0 배, 2027 년 PBR 1.6 배로 추정된다. 글로벌 반도체 세정 장비 상위 업체인 램리서치, NAURA, ACM Research 와 비교하면 PER 과 PBR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이는 디바이스가 아직 글로벌 선도 장비사 수준의 프리미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실적 지속성과 시장 지위 확대가 확인될 경우 멀티플 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표 1] 주요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비교

회사명	시가총액	PER (배)		PBR (배)		ROE (%)		향후 3년	배당수익률(%)
	(십억원)	2026F	2027F	2026F	2027F	2026F	2027F	성장률 (%)	2026F
디바이스	375.8	12.4	7.9	2.0	1.6	17.2	22.0	67.7	4.7
Lam Research	522,594.9	48.6	35.3	30.2	19.8	65.5	68.9	39.5	0.4
NAURA Technology	95,683.6	55.2	39.3	9.3	7.6	17.6	20.3	38.0	0.2
Screen Holdings	19,653.8	18.4	15.7	3.8	3.3	22.2	22.5	10.8	1.7
Acm Research	6,571.6	37.7	28.1	2.7	2.2	8.5	9.9	13.0	0.4
Shibaura Mechatronics	3,243.4	21.0	17.1	4.8	-	22.8	22.7	22.2	1.9

주: 디바이스 시가총액은 무상증자 감안한 시총. 배당수익률은 2025 년 기준
자료: FnGuide(Quantwise), 핀릿 리서치센터, 5/18 일 종가 기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익성 체력이다. 디바이스의 2026 년 ROE 는 17.2%, 2027 년 ROE 는 22.0%로 예상되어 Screen Holdings 와 Shibaura Mechatronics 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온다.

즉 현재 동사는 단순 저성장·저 PBR 종목이라기보다, 자본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성장형 장비주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2027 년 PER 이 7.9 배에 머문다는 점은 이익 성장 속도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향후 3 년 성장률 67.7%는 비교군 중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해, 실적인 이어지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

배당 매력도 긍정적

배당 매력도 긍정적인 편이다. 2025 년 기준 배당수익률 4.7%는 장비주 내에서 방어적인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이다. 즉 동사는 성장성만 부각된 종목이 아니라, 이익 증가와 자본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기대가 동시에 결합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도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적과 수익성이
확인될 경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종목

종합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첫째, 글로벌 피어 대비 여전히 할인된 PER 구간에 있다는 점, 둘째, ROE 개선 속도가 빠르며 질적으로 성장주에 가까운 체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셋째, 배당수익률까지 확보되어 성장성과 방어성을 함께 갖춘 구조라는 점이다.

결국 디바이스는 절대적 저평가주라기보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계속 확인될 경우 시장의 평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본질은 “싸다”에만 있지 않고, “실적과 수익성 지표가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 있다.

[디바이스 영위 사업 전망]

미세 오염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세정 장비를 턴키
공급하는 딥테크
장비업체

디바이스는 2002 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OLED) 제조 공정의 핵심인 '미세 오염제어 (Contamination Control) 기술'을 바탕으로 세정 장비를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공급하는 딥테크 장비 업체이다.

단순히 씻어내는 세척이 아닌, 나노 단위의 수율을 결정짓는 **미세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FMM(Fine Metal Mask) 세정과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 이송하는 전용 용기(FOUP, Front Opening Unified Pod) 클리닝**은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동사 핵심 캐시카우는 OLED 핵심 부품인 **FMM(Fine Metal Mask) 세정장비**와 **반도체 웨이퍼 이송 용기인 FOUP 세정장비**이다.

동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의 수율 향상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한 번 양산 라인에 진입하면 강한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지속적인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OLED 분야에서 동사 FMM 세정장치는 단순 세척이 아니라 증착 정밀도와 직결되므로, 한번 검증된 솔루션은 대체가 쉽지 않다. 후발주자는 고객 라인에서 양산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에, 경쟁업체에게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공정에서 FMM(Fine Metal Mask) 세정장치는 제품 수율에 직결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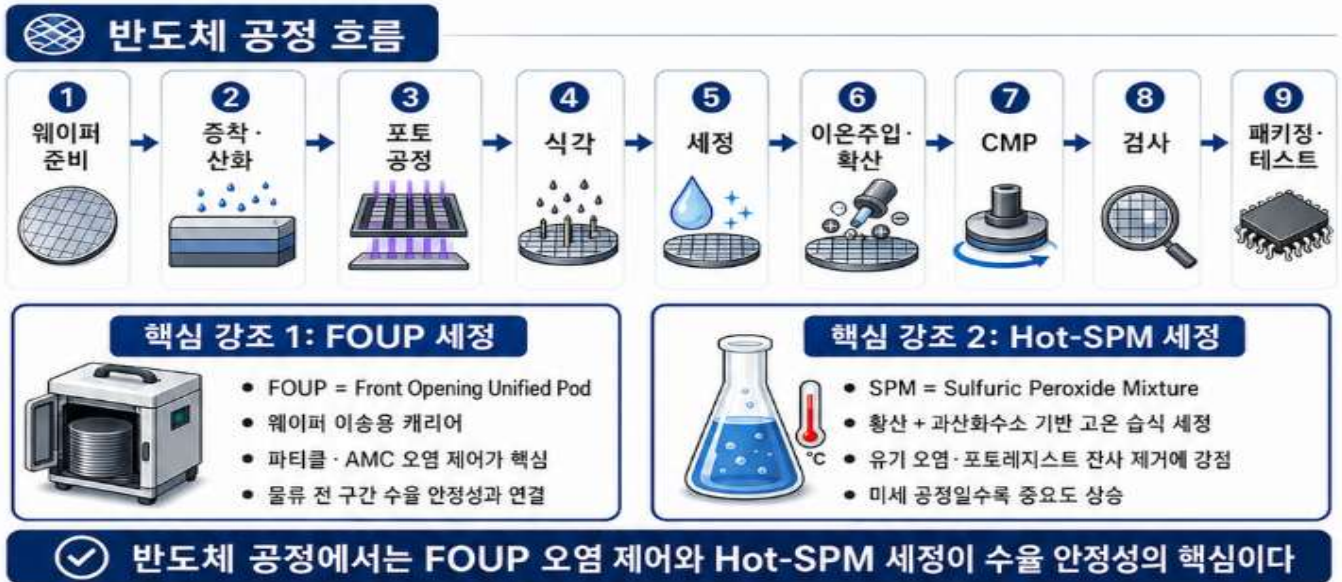
반면,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 FOUP 클리닝 및 세정 솔루션은 오염제어 중요성이 높지만, 글로벌로는 Entegris 가 오염제어·재료취급·FOUP 관련 솔루션에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전공정 세정 장비 쪽으로는 ACM Research 같은 습식 세정 장비 업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사는 반도체 전반의 대형 세정장비업체라기보다, 특정 오염제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장비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시장 전체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검증된 틈새 1 위 기업은 오히려 더 강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SWOT 분석

동사의 **장점(Strength)**은 OLED FMM 세정의 강한 레퍼런스, 주문형 장비 노하우, 높은 진입장벽, 탄탄한 순현금 구조이고, **약점(Weakness)**은 높은 고객 집중도, 실적 변동성, 낮은 사업 다각화, 운전자본 변동성이고, **기회요인(Opportunity)**은 IT OLED 확대, 8.6 세대 전환, 반도체 오염제어 중요성 상승, FOUF 및 고온 약액공급 확장이고, **위협요인(Threat)**은 고객 CAPEX 지연, 중국 장비 내재화, 기술 대체, 재고평가손실 재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5] 반도체 공정에서 FOUF 오염 제어와 Hot-SPM 세정이 수율 안정성의 핵심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전망]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연평균
11.1% 성장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은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5G, IoT,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2024 년 1,328 억달러에서 2034 년 3,382 억달러(약 500 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5~2034 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11.1%이다. 이는 단순한 메모리 업황 회복을 넘어 선단 공정, HBM, 고성능 로직, 파운드리 증설이 결합된 장기 설비투자 사이클로 해석된다.

[그림 6]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May 04, 2026),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평면 공정에서 입체
구조와 첨단
패키징으로 이동

산업의 핵심 성장축은 전공정 장비로 해석된다. 2026 년 기준 전공정 장비 비중은 84.6%로 전망되며, 리소그래피, 식각, 증착, 계측·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특히 공정 미세화와 3D 적층 확대는 장비 난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 장비 업체의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3D 세그먼트 비중은 43.2%, 파운드리 적용 분야 비중은 58.1%로 제시되며, 고성능 칩 제조의 중심이 평면 공정에서 입체 구조와 첨단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구조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May 04, 2026),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반도체 장비산업은
핵심 인프라 산업

따라서 반도체 장비 산업은 경기민감성을 보유하면서도, AI 인프라와 선단 공정 전환에 의해 중장기 성장성이 강화되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 시장은
수율 경쟁력의
핵심 장비

이와 함께 동사가 새롭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 시장은 미세공정 전환, EUV 확산, 3D 소자 구조 확대에 따라 수율 경쟁력의 핵심 장비군으로 부상한 산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4 년 93 억달러에서 2032 년 181 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예측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8.7%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 수요가 아니라 7nm, 5nm, 3nm 및 향후 2nm 공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노 단위 오염 제거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8]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 수요는 어디에서 발생하나



자료: Credence research,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는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수요의 중심은 단일 웨이퍼 스프레이 시스템과 300mm 웨이퍼 라인이다. 단일 웨이퍼 장비는 입자 제거 효율, 화학물질 분사 균일성, 메가소닉·초음파 호환성을 기반으로 10nm 이하 첨단 노드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기술별로는 SC-1, SC-2, SPM, 희석 HF 등을 활용하는 습식 화학 기반 세정이 핵심 방식이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는 AI 반도체와 선단 공정 증설 사이클에서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전망]

글로벌 OLED 산업
연평균 19.6% 성장

디스플레이,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자체 발광 구조를 기반으로 고대비, 초박형, 저전력, 플렉서블 폼팩터를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동사는 이 시장에서 OLED 세정장비에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OLED 시장은 2025 년 642 억달러에서 2026 년 768 억달러로 확대되고, 2034 년에는 3,226 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034 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19.6%로, 일반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도 고성장 프리미엄 기술군에 해당한다.

[그림 8]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시장 및 수요처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May 04, 2026),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수요의 중심은 디스플레이 부문이다. 유형별로 디스플레이가 약 85%, 조명이 약 15%를 차지하며, 기술별로는 AMOLED 가 약 80%로 시장을 주도한다. AMOLED 는 고해상도, 빠른 응답속도, 우수한 전력 효율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TV,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기술이다. 최종 수요처는 모바일·태블릿 55%, 자동차 25%, 웨어러블 20%로 구성된다

핵심 투자 기회는 폴더블 OLED, 차량용 OLED, 마이크로 OLED, AR·VR 용 고해상도 패널이다. 다만 대형 패널 수율, 제조 복잡성, 높은 원가, 수명과 번인 문제는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OLED 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 시장을 넘어 자동차·웨어러블·산업용 디스플레이로 확장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동사가 영위하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세정장비 시장의 매력도는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단순 성장성보다 산업 구조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OLED 공정은 미세화, 대면적화, 고해상도화 될수록 불량 허용폭이 줄어든다.

이는 장비의 절대 수량보다 “검증된 장비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즉 시장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니치 리더는 더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 동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25.1	72.7	57.2	47.2	84.1	
매출원가	76.1	54.8	45.1	36.4	58.4	
매출총이익률(%)	60.9	75.4	78.9	77.2	69.4	
매출총이익	49.0	17.9	12.1	10.7	25.7	
매출총이익률(%)	39.1	24.6	21.1	22.8	30.6	
판매비와 관리비	13.2	4.6	7.8	6.5	8.4	
영업이익	35.8	13.3	4.3	4.2	17.3	
영업이익률(%)	28.6	18.3	7.5	8.9	20.6	
EBITDA	36.8	14.4	5.3	5.6	20.2	
EBITDA 마진율(%)	29.4	19.7	9.3	11.8	24.0	
영업외손익	-4.7	-0.2	-3.9	-4.2	-3.2	
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금융수익 등	5.3	3.8	6.6	6.8	4.0	
금융비용 등	0.5	3.8	2.7	2.6	1.3	
기타	-0.0	-0.2	-0.0	-0.0	-0.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0.5	13.5	8.2	8.4	20.5	
세전이익률(%)	32.4	18.6	14.3	17.8	24.4	
법인세비용	9.1	2.7	1.0	0.6	3.6	
법인세율(%)	22.4	20.2	12.1	6.9	17.4	
계속사업순이익	31.5	10.8	7.2	7.8	16.9	
중단사업순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31.5	10.8	7.2	7.8	16.9	
당기순이익률(%)	25.1	14.8	12.6	16.5	20.1	
지배지분순이익	31.5	10.8	7.2	7.8	16.9	
지배순이익률(%)	25.1	14.8	12.6	16.5	20.1	
비지배지분순이익	0.0	0.0	0.0	0.0	0.0	
기타포괄이익	-0.1	-1.3	-0.1	-0.6	0.0	
당기총포괄순이익	31.4	9.6	7.1	7.2	17.0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 현금흐름	22.2	-0.4	12.0	23.7	6.1	
당기순이익	31.5	10.8	7.2	7.8	16.9	
감가상각비	1.0	1.0	1.0	1.4	2.8	
운전자본증감	-10.7	-12.7	0.5	12.9	-22.1	
기 타	0.5	0.4	3.3	1.6	8.4	
투자활동 현금흐름	-6.1	-78.8	-30.4	-2.0	-9.7	
CAPEX	-1.1	-6.0	-30.8	-27.6	-4.2	
기 타	-5.0	-72.8	0.4	25.6	-5.5	
재무활동 현금흐름	15.8	-4.6	6.9	-15.9	3.4	
배당금의 지급	-4.2	-3.1	-1.4	-0.7	-1.3	
자본의 증감	0.0	-1.4	-1.6	-1.7	-0.3	
기 타	20.0	-0.1	9.9	-13.5	5.0	
현금의 증감	31.9	-83.8	-11.5	5.8	-0.3	
기초현금잔액	68.4	100.4	16.6	5.1	11.4	
기말현금잔액	100.4	16.6	5.2	11.4	11.1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151.5	117.9	108.3	110.7	119.2	
현금 및 당좌자산 등	100.4	16.6	5.1	76.4	8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7	5.9	4.2	5.9	3.7	
재고자산	22.5	14.8	10.9	25.1	32.7	
기타유동자산	17.9	80.5	88.0	3.3	1.7	
비유동자산	34.8	50.5	74.3	93.1	99.0	
유형자산	12.3	17.5	47.4	73.9	63.2	
무형자산	3.1	3.5	3.3	2.5	4.9	
투자자산	11.7	15.7	11.6	8.1	20.3	
기타비유동자산	7.8	13.8	11.9	8.7	10.6	
자산총계	186.3	168.4	182.6	203.9	218.2	
유동부채	39.3	15.3	34.0	43.5	36.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1	7.1	4.6	9.2	4.0	
사채&차입금	3.8	3.1	23.0	1.2	2.0	
* 이자발생부채	14.6	15.6	26.6	16.5	21.5	
기타 (선수금 등)	25.4	5.1	6.4	33.1	30.3	
비유동부채	17.6	18.7	10.1	16.6	20.9	
사채&차입금	14.5	15.5	10.0	16.5	20.8	
기타비유동부채	3.1	3.1	0.1	0.1	0.1	
부채총계	56.9	33.9	44.1	60.1	57.2	
지배지분	129.4	134.4	138.5	143.7	161.0	
자본금	3.5	3.5	3.5	3.5	3.5	
자본잉여금	20.3	20.3	20.3	20.3	20.3	
이익잉여금	102.6	110.2	115.3	122.3	138.6	
기타 (자기주식 등)	3.0	0.5	-0.6	-2.4	-1.3	
비지배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29.4	134.4	138.5	143.7	161.0	
순차입금	-101.1	-81.2	-65.5	-59.9	-59.6	

주요지표		(단위: 원/주)				
12월 결산	2021	2022	2023	2024	2025	
EPS	2,284	784	523	566	1,229	
PER(배)	6.8	9.0	14.4	10.8	5.8	
PBR(배)	1.6	0.7	0.7	0.6	0.6	
PSR(배)	1.7	1.3	1.8	1.8	1.2	
EV/EBITDA(배)	3.0	1.1	7.2	4.4	1.9	
성장성(% YOY)						
매출액 증가율	-0.9	-41.8	-21.4	-17.5	78.3	
영업이익 증가율	-18.1	-62.8	-67.7	-2.1	310.7	
순이익 증가율	3.5	-65.7	-33.3	8.3	116.9	
수익성(%)						
영업이익률	28.6	18.3	7.5	8.9	20.6	
ROE	27.6	8.2	5.3	5.5	11.1	
안정성(%)						
부채비율	43.9	25.2	31.8	41.8	35.5	
현금배당수익률(%)	1.5	1.5	0.7	1.7	4.7	

자료: FcGuide(Quantities), 핀릿

[투자의견 (변동) 내역]

일 시	2026. 03. 25	2026. 04. 13	2026. 05. 20		
투자의견	Not rated	Not rated	Not rated		
목표가격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15%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 ~ +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목표주가를 산정하지 않을 시에는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